고 발 장

고발인 : 군산미군기지 민항활주로 사용료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군산시 나운동 1188-9 천주교나운동교회

공동대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주임신부)

문재곤(군산 관음사 주지)

오충일(군산 복음교회 담임목사)

담당자 최종수 집행위원장

(467-8788)

피고발인 :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2. 군산경찰서 서장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소 사 실

1. 피고인들은 지난 1월20일 군산시 옥서면 미공군기지내 헌병대 앞 쓰레기 하치장에서 다량의 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 위조지폐는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3장씩 복사됐으며 잘려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를 책임져야 할 군산지청과 경찰서는 아주 미온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2. 이번 사건은 형사전속관할권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위조지폐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국제법상 형사전속관할권에 속하여 한국단독으로 국내인 누구나 수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공군부대가 작전지역일지라도 한국이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수사는 미군측이 수사하고 한국이

도와주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바로 주권을 포기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측이 하자는데로 쫓아가는 한국수사당국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 미공군기지내에는 5대의 컬러복사기가 있다고 한다. 3대는 작전지역내에 있고 2대는 서무계와 후생관에 있다고 한다. 미군측은 아마도 후생관에 있는 컬러복사기에서 위조지폐를 복사한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하에 미군인 사건발생 다음날 후생관 컬러복사기를 자주사용하는 한국군 10명의 지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하지만 미군은 이 사건이 발생하지 15일이 지나서야 10명의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이는 군부대라는 이유로 초등수사의 허점을 들어낸 것이며, 위조지폐사건의 증거인멸과 조작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군에 대해서는 다음날 국과수에 지문을 보냈으나 미군은 15일 지나서야 미군들의 지문을 채취한 것은 바로 미군당국이 자신들의 혐의를

4. 그런데 이 문제를 담당해야 할 한국의 수사당국인 군산지청장과 경찰서장는 그동안 관행에 길들여져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형사전속관할권조차 포기하고 미군측의 요구대로 쫓아가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5. 피고인들이 포기한 형사전속관할권은 바로 한국의 주권을 포기한 행위이며, 이는 우리가 미국의 속국임을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피고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군뒤에 쫓아다니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 2. 12

고발인 군산미군기지 민항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정현

문재곤

오충일

전주지방검찰청 귀중